



회장은 30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리는 '2018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주관.

올 상반기 1,519억 예산 조기 집행

【양구】양구군이 올해 상반기 1,519억원의 조기 집행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기조에 동참하고 지역 경제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신속 집행 대상액의 55.5%인 1,519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군은 최근 수년간 예산 조기 및 신속집행 순위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 순위가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식수전용저수지를 비롯한 대형 사업과 시설하우스

양구군 지역성장 차원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

내달 각종 사업 용역 발주

사업 등으로 인해 조기 집행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흥남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상반기 내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부서별 추진 상황 등을 파악해 집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월까지 각종 사업의 설계 및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일자리 사업, SOC 사업,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긴급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사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최대한 노력해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심은석기자

【 2018.1.(화) 강원도민일보 】



【 2018.1.(화) 건설경제 】

건협 기획위원회,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대한건설협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김한주 정아산업 대표)는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올해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김한주 기획위원장은 “올해도 공공건설 투자 및 민간건설 경기

의 위축과 안전사고 방지·약자 보호를 위한 원도급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협회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지역 노후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량 창출 방안 등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달라”고 밝혔다.